

現代 인플레이션의 特徵과 그 政策基準

劉 奉 哲

<漢陽大 副教授>

現代의 인플레이션은 財政政策 中心의 經濟成長政策과 이것을 支持하기 위한 通貨增發로 進行되고 있다. 이러한 進行過程에서 나타나는 通貨效果의 작용하에서는 價格의 競爭條件이 成立되지 않으며 不況期의 가격유지 카르텔이나 好況期의 市場效果에 의한 物價上昇과 같은 여러 가지 要因이 物價수준을 累積적으로 上昇하는 方向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物價上昇을 가져오는 諸條件이나 諸機構가 자기 特定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따라 관찰하는 인플레이션分析도 여러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들에 관한 몇가지 대표적인 理論을 간단히 고찰하고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한 物價政策의 選擇基準을 고찰하기로 한다.

1. 超過需要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需要側에서 보는 理論과 供給側에서 보는 이론이 있다. 전자는 超過需要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을 주장하고 후자는 費用引上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주장하여 두 이론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超過需要 인플레이션은 總需要가 總供給을 상대적으로 초과하여 物價上昇을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즉 物價上昇의 要因이 超過需要 또는 「인플레 갭」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供給側이 일정한데 財政支出이나 投資 및 輸出 등의 最終需要가 증대하면 물가는 등귀하게 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經濟的 要因으로 생기는 가장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이며 이론적으로 가장 지

배적인 이론이다. 이제 그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사회의 總需要가 總供給을 超過할 때 일반적 需要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生産能力에 대한 超過需要와 勞動力에 대한 超過需要가 있을 때 부분적 超過需要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실제로는 一般的 超過需要인플레이션(케인즈의 인플레 갭)보다는 부분적 超過需要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超過需要의 개념은 個別市場에 관하여 定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다. 어떤 財貨에 한해서만 수요가 供給을 超過하여 그 財貨의 價格이 上昇한다면 이것은 「인플레 갭」이 아니고 隘路(bottleneck)에 의한 價格上昇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個別市場의 超過需要에 의하여 생기는 價格上昇을 일반적인 超過需要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때 「인플레 갭」과 隘路間의 구별을 명백히 하기는 어렵지만 經濟 전반에 걸쳐서 隘路가 일반화된 상태를 「인플레 갭」이라고 할 수 있다. 短期的으로 需要增大에 따르는 資本設備의 增大可能性이 없을 경우 經濟의 各部門에 걸쳐서 애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經濟部門의 어떤 部門이 生産過剩(需要不足)이고 어떤 부문이 生産能力不足(超過需要不足)인 상태가 병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후자의 상태에서 생기는 價格上昇을 부분적 超過需要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 超過需要인플레이션이 일반적 超過需要인플레이션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즉 經

濟 전반에 걸쳐 超過需要의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어떤 부문에 過剩設備나 過剩在庫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생기는 강력한 超過需要가 經濟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部門的 超過需要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經濟 전반에 걸쳐 작용한다는 것은 그 部門에서 생산되는 財貨의 價格上昇이 이 財貨를 원료로서 사용하는 他部門의 코스트를 인상시키거나 또는 그 部門에서 생긴 賃金의 上昇이 他部門의 賃金上昇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物價上昇이 他部門에도 파급되어 나가게 된다.

이와같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需要를 억제하여 物價上昇을 중지시키기는 어렵다. 부문적 超過需要에 의하여 일어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需要抑제를 목적으로 한 金融政策은 有効性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이유는 經濟 전체가 超過需要의 상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억제를 한다면 物價上昇의 중지보다도 景氣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需要抑制 등에 의하여 過剩設置部門에 대한 需要까지 억제하게 되면 생산의 감축을 초래하게 되어 量産에 따르는 生産性向上에 지장을 가져와 賃金코스트가 上昇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生産物市場에 있어서 消費者物價를 상승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生鮮食料品の 價格上昇은 부분적 超過需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生鮮食料品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性은 크기 때문에 經濟成長 과정에 있어서 個人所得이 증대에 따라 이들 生鮮食料品の 需要는 증가하나 이에 반해서 공급면에서는 經濟成長을 주도한 民間設備投資가 주로 製造工業에 집중하게 되므로 農水畜産業이나 流通面에서의 生産力 확대는 뒤떨어지게 되므로 공급이 需要를 充足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부분적 超過需要의 또하나의 예는 勞動市場에 있어서 中小零細企業에 의하여 고용되는 노동자의 賃金이다. 즉 進學率의 向上과 大企業의 先占에 의하여 노동력의 공급량은 적어짐에 반하여 中小零細企業의 노동력需要는 증가되어 노동력의

超過需要가 지속된다. 이러한 현상은 賃金格差를 축소시킨다. 이와같은 賃金格差의 축소를 수반한 賃金上昇은 勞動組合의 交渉力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人力不足 즉 超過需要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2. 費用引上 인플레이션

費用引上 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은 어떤 經濟 주체 또는 集團이 市場을 지배할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이다. 賃金の 결정, 輸入商品價格, 가격과 賃金の 下方硬直性, 노동의 非移動性 등 공급면에서 完全競爭의 요인이 배제되는 경우에 생기는 物價上昇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費用引上 인플레이션은 管理價格, 輸入商品價格, 勞動組合에 의한 전략적 賃金수준 등과 같은 經濟制度에 있어서 外生的으로 생각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物價上昇은 超過需要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費用面の 압력에 의하여 생긴다. 이 경우에는 비용의 증가율이 物的 生産性的의 增加率을 상회하게 된다. 이 경우 企業이 비용의 上昇分을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이 이윤을 감소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지만 獨寡占 생산이 많은 경우에는 利潤의 幅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므로 費用引上分은 가격에 전가되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된다. 그 원인으로는 賃金の 상승, 固定費用의 上昇, 原料費, 動力費 및 輸送費의 增加 등을 들수있다.

生産物市場에 있어서 대기업의 工業製品價格은 下方硬直성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임금의 상승에 의하여 平均直接費가 저하되지 않고 資本係數의 上昇에 의하여 회수해야 할 資本費用部分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資本係數는 원래 資本設備의 정상적인 操業率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生産能力過剩이 만성적으로 존재할 경우 製品單位當 資本負擔을 높이게 한다. 企業의 同業의인 카르텔에 의하여 형성되는 管理價格은 費用決定型이라는 點은 같지만 費用構成要素인 賃金の 결정은 경쟁적이며 賃金の 상승은 노동의 超過需要에 의하여 생긴 불가피한 귀결이다.

中小企業性的의 加工食品이나 民間서비스料金の

引上은 주로 賃金費用의 增大에 기인한다 해도 그것은 攻勢的인 賃金引上에 의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와 같은 賃金費用의 증대를 기초로 하여 現業者의 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價格形成을 보호하는 것이 同業的 카르텔의 역할이다. 勞動市場에 있어서 大企業이나 公務員의 임금인상은 雙方獨占的 賃金交渉에 의하여 결정되며 다른 사정이 같은 限 勞動賃金の 상승은 費用決定型價格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결국 賃金과 물가에 있어서 勞動組合의 힘이 강하여 經營者와의 교섭에 의하여 賃금이 결정된다면 賃金決定은 物價上昇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大企業 중심의 近代의 工業部門에 있어서 勞動生産性上昇으로 인한 賃金上昇은 勞動生産性이 낮은 農林水産, 서비스업, 및 中小企業 등의 후진적 부문에서도 勞動力 확보를 위한 賃金引上을 일으킨다. 이리하여 賃金格差의 縮小過程을 밟게됨으로써 후진적 부문의 生産物價格을 인상시키게 된다.

費用引上和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되는 管理價格의 개념은 廣義로는 獨占力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형성되는 非競爭價格을 의미하며 狹義로는 풀·코스트(full-cost)原理에 따라 형성되는 寡占價格을 의미한다. 完全競爭市場에 있어서는 需給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므로 의식적인 價格引上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나 가격이 특히 풀·코스트방식(平均直接費에 一定比率의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형성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해서 賃金費用이나 原料價格이 상승하는 경우 製品價格은 需要狀況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失業이나 過剩生産能力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勞動組合의 강력한 교섭력에 의하여 임금이 인상되거나 또는 價格先導에 의한 기초적인 原材料價格이 자율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이에 따라 費用引上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3. 物價上昇의 現實要因

현실의 물가上昇의 요인을 한가지로 단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經濟成長下에서 物價上昇은 通貨供給의 증대 내지 名目總需要의 증대와

더불어 일어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因果關係를 규명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因果關係의 連鎖로서는 市場에 있어서 超過需要의 발생과는 관계없이 賃金 또는 生産物價格의 인상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생기는 失業이나 生産縮少를 피하기 위하여는 名目的 需要의 확대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總需要의 확대가 供給能力을 초과한다면 「인플레이 갭」에 의한 物價上昇을 일으키며 勞動市場에 있어서도 노동의 超過需要 때문에 賃金の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비용이 증대되어 物價가 上昇하지만 이러한 物價上昇을 費用引上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맥크러프(F. Machlup)의 定義에 의하면 「自動的인 需要의 擴大(政府, 企業, 消費者 등의 支出增加)에 따라서 競爭的 價格 및 賃金の 上昇이 생긴다」는 것이 超過需要 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정의이다. 이에 대하여 費用引上 인플레이션도 「賃金率 및 資材價格의 雙方 또는 一方이 攻勢的으로 인상되어 그에 따라서 誘發的 또는 지지적 需要擴大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需要의 증대와 비용의 增加가 함께 일어나게 된다. 이와같이 超過需要 인플레이션과 費用引上 인플레이션의 定義上의 區別이 명확하다 해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物價上昇이 일어나는 경우에 기여하고 있는 個別價格의 움직임은 各部門이 다른 원인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超過需要나 費用引上이나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다. 물론 戰時나 戰後에는 순수한 超過需要型이 있을 수 있지만 經濟의 成長下에서 物價上昇은 다만 일반적인 物價水準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相對價格의 커다란 변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부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때 超過需要나 費用引上이나 하는 문제에 거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個別部門 내지 產業의 市場構造를 파악함으로써 價格形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중요한 구별은 市場支配力の 有無이다. 市場支配

力이 없고 個個의 販賣者와 購買者가 통제력이 없이 가격이 시장의 需給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競爭市場決定型의 가격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는 野菜類, 生鮮食料品의 가격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價格維持를 위하여 市場支配力을 배경으로 하여 공급을 조정하거나 販賣者가 價格을 설정하거나 또는 販賣者와 購買者의 교섭에 의하여 價格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費用決定型價格 또는 管理價格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經濟社會에 있어서 個別市場의 일부는 競爭價格決定型이고 일부는 費用決定型으로서 실제로 양자의 혼합이 市場全體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現代物價政策의 特徵

현대의 인플레이션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通貨效果의 작용으로 발생한 物價上昇을 여러가지 국면에서 파악하여 각각의 이론 모델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物價上昇의 부분적인 기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각각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 制度的 조건이나 市場狀態에 따라 구체적인 物價上昇 현상은 여러가지 原因과 기구를 가지며 그 대책도 같지 않다. 그러나 현대의 物價上昇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財政政策의 결과로서 나타난 通貨效果의 작용이라 하겠다. 財政政策의 활용에 의한 景氣支持策은 성장률을 높이며 이것이 國民生活를 유복하게 한다면 그 효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필연화하여 경제의 실질적 성장을 阻害한다면 그 效用을 잃게 된다.

實質利得의 성장이 지속되는 限 약간의 物價上昇은 必要惡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物價上昇이 實質所得의 성장을 저해할 경우에는 그 合理性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物價上昇을 罪惡視한다면 그 결과 經濟沈滯를 가져와 恐慌을 초래하는 정책은 더욱 위험하다. 通貨效果政策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原因을 규명하여 그것을 의식적으로 制御함으로써 한편으로는 實質所得의 成長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物價上昇을 저지하는 政策基準이 필요한 것이다.

經濟成長에 따르는 物價上昇은 先進資本主義

諸國에서도 다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책도 그 特殊事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공통점이란 經濟成長을 유지하기 위해 財政政策의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政府의 강력한 指導 내지 規制에 의한 物價政策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政策을 대별하면 英美의 경우는 가이드포스트(guideposts)方式 또는 所得政策 등으로 物價와 賃金의 상승을 直接統制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나 西獨의 경우는 財政的·金融的 조치에 의한 需要抑制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느 경우도 財政金融政策에 의한 需要抑制과 直接的 物價·賃金規制가 補完的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英美의 경우에는 費用要因을 중시하고, 프랑스나 西獨의 경우에는 需要要因을 중시하고 있다. 所得政策이란 生産性上昇에 따라 증가하는 貨幣所得의 증가율을 조정하여 이것을 實質 GNP 成長率의 범위내에 억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즉 生産性上昇에 따르는 賃金上昇을 抑制하여 賃金上昇으로 일어나는 物價上昇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物價統制에 의하여 生産性上昇의 成果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도 분배코자한다. 위에 말한 가이드포스트方式도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것과 別 차이가 없다.

이와같은 所得政策 또는 가이드포스트방식이 엄격히 실시된다면 어느 정도의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自由競爭이 이루어 지는 경우 景氣循環의 국면에서 신속적인 物價變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自由競爭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 사회에 있어서는 政治權力에 의한 규제에 의하여 物價安定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財政政策에 의한 景氣變動의 안정화와 成長率維持가 物價水準의 上昇傾向을 가져오므로 政府가 物價安定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경기를 저지하는 것만으로는 物價上昇에 의해 불이익을 초래하는 階層에 대해서 公平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所得政策이나 가이드포스트方式만으로는 현대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需要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生産性上昇率이 높은 部門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만

으로는 低生産性部門의 價格上昇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히 消費者物價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5. 정책의 理論的 基準

現代資本主의 인플레이션은 財政支出에 의한 景氣支持가 누적적인 通貨效果의 작용을 초래하는데 그 基本的인 원인이 있다. 이러한 通貨效果의 누적적인 작용을 放置하는 限 所得政策이나 가이드포스트政策 또는 기타의 미봉적인 억제책은 부분적인 對應策으로서 효과를 갖는데 불과하다. 物價上昇의 根本原因이 通貨效果의 작용에 있으므로 그 對策도 通貨效果의 작용으로 相殺해야 할 것이다.

즉 不況期에 지지적인 인플레이션政策이 이루어진다면 好況期에는 억제적인 디스·인플레이션政策을 실시하여 通貨收縮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彈力的인 財政政策에 의하여 우선 성장률을 계획적인 安定水準으로 유지하며 이것을 補完하는 것으로서 獨寡占禁止法의 運用 強化를 시도하고 이것으로 價格競爭의 可動條件 喪失下의 가격 상승이나 부당한 가격 維持 카르텔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獨寡占禁止法의 運用 強化로 위와 같은 彈力的인 財政政策에 의한 通貨效果作用의 억제가 없는 限 物價上昇을 저지하는 有效策이 될 수 없다. 通貨效果의 累積的作用에 의하여 價格競爭의 可動條件이 상실되어 있으므로 獨寡占禁止法만으로 不公正競爭이나 獨寡占行爲를 규제한다 해도 그것이 價格競爭을 可動시키는 것은 아니다. 獨寡占禁止法의 運用 強化는 部分的으로 존재하는 攻勢的인 價格協定카르텔 등을 억제할 수 있어도 物價上昇防止의 근본책이 될 수는 없다.

이리하여 이론적으로 본다면 物價上昇의 억제는 우선 財政·金融政策의 彈力的인 運營에 의하여 通貨效果의 활용을 제어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需要調整이 不況期의 지지적 需要創造와 好況期의 需要增大抑制로서 절도있는 한계내에서 上下兩方向으로 補整的 財政政策으로 실시되어야 비로소 다른 補完政策 예컨대 獨寡占禁止法의 運營 強化나 가이드포스트 방식 등이 유효한 效果로

나타날 것이다.

通貨效果의 작용을 相殺하는 다른 요인은 生産性 수준의 上昇이다. 장기적으로 財政支出의 通貨效果를 物價水準에 작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財政支出이 生産性 수준을 상승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財政支出이 일시적인 超過需要를 형성하여 物價上昇을 초래한다 해도 長期的으로 그것이 生産性 상승을 가져오는 限 物價上昇을 시정할 수 있다. 더우기 生産性 上昇도 通貨效果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物價를 下落시키지 않는다.

生産性 上昇에 의한 供給增加를 지지적인 需要創造가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실현된 生産性 향상을 物價下落에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社會開發投資나 財政投融資의 혜택으로 生産性을 향상시켜 超過利潤을 얻은 모든 企業에 대해서 그 生産性 上昇率에 해당하는 一定率의 價格引下를 강제하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價格引下分에 상당하는 罰則的 法人稅를 課稅하는 강력한 가이드포스트方式을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物價政策의 이론적 基準으로서의 우선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의 彈力的인 運營에 의한 通貨效果의 제어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와같은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成長率을 계획적으로 규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不況期의 財政支出增加로 景氣支持를 도모하는 경우에도 그 支出이 장래의 生産性 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政策下에서 이를 補完하는 獨寡占禁止法의 運用 強化나 가이드포스트方式(生産性 向上率이 높은 部門의 價格引下를 위해)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彈力的인 財政政策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財政政策의 抑制的 방향을 金融政策에서는 逆으로 刺戟策을 써서 무효화하거나 金融政策이 緊縮을 실시하는데 財政政策이 擴張政策을 의연히 취하고 있으면 수요억제도 실효를 얻을 수가 없다. 재정면에서의 팽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金融面에서의 긴축은 不況期에도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6. 物價政策의 現實의 方向

이제까지의 견해를 요약하여 物價政策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經濟成長을 유지하며 完全雇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不況期의 支持的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정책에 의한 通貨效果의 累積的作用으로서의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好況期의 通貨收縮을 실시하여 長期的인 財政均衡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不況期의 景氣支持로 所得成長과 價格維持를 실시해야 하나 반대로 好況期에도 賃金이나 物價上昇에 계획적인 규제를 加하여 특히 生産性 상승이 현저한 部門의 製品價格을 引下할 경우 特別減稅, 價格維持 또는 인상인 경우에는 罰則的 增稅라는 租稅政策을 結合한 강력한 가이드포스트方式으로 價格引上을 防止해야 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公共開發投資로 인한 土地價格의 상승도 직접적인 地價統制나 罰則的인 課稅로 규제할 수가 있다.

셋째 長期政策으로는 지지적 인플레이션으로서의 財政支出=通貨增發을 될수있는 限 生産性水準向上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에컨테 流通機構의 정비나 道路, 鐵道, 港灣施設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開發, 研究開發을 위한 研究教育設備나 費用 등에 중점적으로 지출해야 하며 특

히 농업의 경우는 米價支持와 같은 非能率的인 지출보다는 農業近代化資金으로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農業生産力向上에 힘써야 한다. 네째 이러한 방향으로 財政政策이 실시된다면 獨寡占禁止法의 運用강화도 實効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物價政策의 기준방향을 지시하였으나 이것을 실제로 실시하기는 정치적인 곤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安易한 成長政策으로서의 財政膨脹政策이 지속된다면 通貨效果의 累積作用은 眞正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가 만일 이를 피하기 위해서 需要抑制策을 사용하면 恐慌 사이의 위험한 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길을 가자면는 節度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資本主義體制下에서는 여러가지 經濟政策이 복잡한 利害關係를 조종하는 比較選擇으로서 실시된다. 이러한 政策選擇基準을 이론적으로 구한다면 그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經濟福祉의 향상에 있다. 資本主義體制가 이러한 목표를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930年代 이래의 체험에서 분명하다. 이 때문에 케인즈이론에 의한 적극적 經濟政策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것도 현대의 인플레이션을 해석하는데는 한계에 달한것 같다. 이리하여 安定的 經濟成長에 의한 國民福祉 수준의 向上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케인즈政策을 넘는 경제의 계획화가 요구되는 것이다.